

제12강 성경의 맥잡기_신구약 중간시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의 시대)

밀림의 패권자 사자가 자신의 왕권(패권)을 확인하기 위해 밀림에 들어갔습니다. 사자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다른 동물은 그냥 놔두고 곧장 곰에게로 가서 물어 보았습니다. “밀림의 왕이 누구냐?” “물어보나 마다 당신이지요” 곰이 대답하자 사자는 포효하며 끄덕입니다. 다음은 호랑에게로 갑니다. 호랑이도 “오 사자님 물론 당신이지요” 사자는 자부심으로 의기양양해집니다.

다음은 코끼리에게 갑니다. “밀림의 왕이 누구냐?” 그러나 코끼리는 사자를 코로 붙잡더니 공중에서 대어 셋번 빙글빙글 돌리더니 큰 나무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어서 코끼리는 다시 사자를 여러번 내려치고 그 위에 깔고 앉고 호수에 빠뜨리고 다시 기슭으로 내던졌습니다. 심한 타박상을 입고 멍이 시퍼렇게 든 사자는 간신히 시력 좋은 눈으로 코끼리에게 말합니다. “이봐 자네가 정답을 모른다고 이렇게 아비하게 굴 것까진 없잖아!”

중간기 종교지도자들은 이 사자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장했고, 자기도취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어떤 지도자들은 지식의 샘에서 물을 마셨고, 또 어떤 지도자들은 목만 가셨습니다. 이 모든 자만 때문에 자멸로 이끄는 전형적인 종교적 위선이 나타났으며 그리하여 이 시기는 유대 민족의 역사에서 실망스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다른 지도자들은 중간기 400년동안 이스라엘을 율법주의의 무덤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중간기는 4가지 중요 주제가 있습니다.

(1)식민지의 변동 (2)정치적 분파들 (3)종교적 분파들 (4)메시아 대망

1. 식민지의 변동 : 열강들의 진격

바사제국 : 구약성경이 끝났을 때, 예루살렘은 바사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BC.539-BC333) 고레스2세가 바벨론 포로민을 본토로 귀환시킵니다.(BC537년, 1차 포로귀환) 고레스2세 사후 다리오1세(BC521-485)가 즉위하여 성전재건중단상황에 고레스2세의 칙령을 확인하고 성전재건지속을 허락한 왕으로 바사제국의 황금기를 이룹니다만, 헬라제국과 마라톤전투에서 패배하기도 합니다.(BC490. 스4:24) 다리오1세의 아들은 크레르크세스1세(BC485-464)로 에스라와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왕과 동일인(스4:6)으로 선대 왕과 달리 폭정과 향락에 빠졌으며 그리스 원정에 실패하여 전사합니다. 아하수에로왕 사후 아닥사스다1세(BC464-423 2장, 2-3차 포로귀환)가 즉위하여 느헤미아의 탄원을 받아들여 유대총독을 파견하고 성벽재건을 지시한 왕입니다.

헬라제국 : 헬라제국은 인도 유럽족 (BC2000년) 의 남하로, 아케안족과 도리안족 (BC1400년) 헬라족 (BC1300-1000년) 귀족정치(BC750-600년)와 마라톤전투(BC490)와 살라미스해전 그리고 올림피아 제전을 거쳐 헬라 북쪽의 빌립(BC359-336년)이 스파르타를 제외한 헬라 전지역을 통일했으며, 그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제국 다리오3세를 잇소에서 타파한후 점령(BC.333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 문화와 헬라어를 보급함으로써 그 일대를 통일하는 원동력으로 활용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리스 제국은 4분되는 혼란을 거쳐 안티오쿠스왕조(그리스) 플로레미왕조(이집트) 셀류쿠스왕조(시리아)로 3분 됩니다만,

그런 중에 헬라(그리스)문화는 계속 발전되었고 로마제국에 멸망당하기까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로마제국 : BC167년 3분된 헬라제국 왕조중, 안티오쿠스4세(에피파네스)가 로마가 3개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자, 이제는 로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티오쿠스4세(에피파네스 BC175-163)의 유대인을 박해함으로 유대의 마카비가 혁명(BC167)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하스몬왕조(BC142-40)를 세우고 유대독립국가를 이루며 수전절을 지키게 됩니다.

율리어스 시이저와 그를 암살한 부루터스가 공화정치를 주장했지만,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가 황제 칭호를 받으며 초대 로마 황제로 등극합니다. 오현제 시대까지 200년동안 로마 평화 시대(Pax Romana)를 주창하며 세상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신구약 중간기 기간동안 열강들의 진격은 바사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진격하였습니다.

2. 정치적 분파들 : 마카비가와 열심당

400년 중간기 동안, 외국 통치에 반기를 들고, 예루살렘과 유대 일대를 독립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무장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카비가와 열심당**은 이런 분파에 속합니다.

3. 종교적 분파들 :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는 유력한 두 개의 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불행이도 이 분파는 백성들을 참된 영성으로 인도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내적인 동기와 태도는 무시하고 외형에만 집착하는 종교적 '율법주의'를 조장하는데 열심이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는 정통파였고 보수적이었으며 자기들과 세속사회를 분리시키는데 열중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좀 더 자유적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예루살렘의 귀족 계급이었고 자기들의 부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파고를 되도록 잔잔하게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통치기구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집단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소망과 이후 합심하여 나사렛 예수를 반대했던 일을 제외하고는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4. 메시아 대망 : 구원자에 대한 기대

'메시아' 혹은 '구원자'는 구약성경의 약속된 인물입니다.

유대인중에는 영적 구원을 고대하는 부류도 있고, 오직 정치적 구원만 열망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이 두가지 이유로 중간기 400여년동안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중간기에 일어난 사건들은 세상의 모든 변화가 메시아 도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 (1) 이 지역은 공통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에 메시아 메시지가 좀 더 수월하게 전파되었습니다.
- (2) 로마제국은 이 지역을 무력으로 안정시켰고 도로 항만 교통 체계를 확충했으며 통치체제를 단일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장애없이 넓은 지역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 (3) 유대인들은 종교적 박해와 정치적 굴욕을 심하게 당했기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널리 퍼졌습니다.



